

# 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## 기후·에너지 정책

### ◆ 알제리-이탈리아 에너지 관련 협력 동향(주알제리대사관)

- 알제리를 방문한 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3.4(화)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으며, 동 계기에 논의된 양국간 에너지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동 회의에 참석한 아르카브(Mohamed Arkab) 에너지·광물·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알제리가 자원, 지리적 위치, 인프라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하며, 농업, 관광, 광업, 재생 가능 에너지, 통신,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
  - 더불어, 알제리는 유럽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알제리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된 투자 기회도 매력적이라고 강조
  - 금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은 투자 기회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으며, 이는 양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예정
-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아르카브 장관은 이탈리아 ENI社 고위 대표단 및 알제리 국영석유기업 소나트락(Sonatrach)社와 협력 회의를 주재하고 소나트락-ENI 간 전략적 협력 관계와 석유가스, 신재생에너지, 전력망 분야 관련 미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.
  - 아르카브 장관은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을 보장할 것이며 에너지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들이 진행 중인바, 이탈리아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
  - 이에 ENI社 측은 소나트락社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추후 알제리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고 특히 수소 및 재생 에너지 분야 관련 양국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원할 의지 표명

## 광물자원

### ◆ 美 CSIS, 미국에게 카자흐스탄 우라늄 확보 경쟁 참여 권고(주카자흐스탄대사관)

-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(CSIS)가 미국 기업들에게 핵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투자를 권고함.
  -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도 이 전략적 자원 확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
- 카자흐는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3%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으로, 저비용 채굴이 가능한 가치 있는 광상을 보유함.
  -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카자흐 국영원자력공사 Kazatomprom社와의 관계를 통해 카자흐 우라늄 수출량의 30%를 구매하고 있으며, 러시아도 카자흐 우라늄에 크게 의존중으로 연간 약 5,000-6,000톤 수입중
- CSIS는 미국이 우라늄 부국들과 장기적 광물 구매를 보장하고 개발도상국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함.
  - 카자흐는 2024년 23,270톤 우라늄을 생산했으며, 28,118톤 우라늄을 46억 달러에 수출하였고, 2025년에는 25,000-26,500톤 생산 예상. 끝.